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함의*

서미경(고신대학교/연구원)

smkapples@gmail.com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을 기독교교육적으로 해석하여 설명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모형의 대안으로 기독교적 신앙을 토대로 한 신앙적 핵심역량 모형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신앙'으로 도출하였다. 기독교적 핵심역량 '신앙'은 성경 지식(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과 세계와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곧 역량이다. 핵심역량 '신앙'은 모든 역량의 함양과 발휘의 동기, 태도, 가치의 기반(기준)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적 핵심역량 모형은 기독교적 핵심역량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6개의 핵심역량이 함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을 기독교교육적으로 해석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 관리 역량에서 자아정체성은 초월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 심미적 감성 역량에서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신 하나님,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온다. 인간의 공동체성은 우주

* 본 연구는 연구자의 2019년 12월 박사학위 논문의 한 장을 요약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며,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0년 5월 7일 온라인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논문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근원이다. 기독교적인 공동체는 하나님, 타인, 자연과의 삼중관계 안에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역·국가·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의사소통 역량은 먼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좋은 태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공통의 언어는 서로간의 소통하는 교제를 위해서 주신 성경이다. 하나님은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창조 세계를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과 세계와 소통하게 하셨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에서 지식과 정보의 처리와 활용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은 인간 존중을 위한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창의적 사고 역량에서 창의성의 근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창의적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창의성은 개인의 선호도와 흥미에 따라 다른 표현 양식을 가지며, 각 개인의 중요도와 성취도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진다. 개인의 창의성은 교육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며,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 주제어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 기독교적 핵심역량, 신앙, 6개 핵심역량의 기독교교육적 해석, 기독교 신앙적 핵심 역량 모형

I. 들어가는 말

교육부는 2015년 9월 23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6개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 초·중·고교 전 학년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교육부, 2015a).

4차 산업혁명 시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변화 요구에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 교육과정을 2015년에 개정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다음 교육과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의 변화 요구는 기독교교육의 영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기독교교육은 다음세대인 4차 산업혁명 세대 학습자들에게, 세상에 기독교가 대안임을 보여주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교육을 잘 받은 학습자들이 세상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루이스(C. S. Lewis)는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나는 해가 뜬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를 통해 다른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이다”(Lewis, 2000, 21)라고 묘사하였다. 기독교는 그 자체로 설명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 기독교교육은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실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창조 질서로서 모든 교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에서 소홀히 여겨진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기독교교육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생과 관련된 공교육, 사교육 그리고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교회교육뿐 아니라 기독교교육의 전 영역에까지 예외 없이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이 교육의 영역에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에 대한 기독교교육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모형의 대안으로 기독교적 신앙을 토대로 하는 신앙적 핵심역량 모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모형의 대안으로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하는 기독교 신앙적 핵심역량 모형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인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독교교육적으로 해석하여 설명하는 것에 있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역량’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기독교교육에서 역량기반 교육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발표된 연구로는 ‘역량’과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연구(김웅기, 2017; 장화선, 2015), 교회교육을 위한 연구(김효숙 외, 2013; 연지연, 최은수, 2016; 조철현, 2015; 2017), 역량중심 교육과정 적용(이수인, 2018), 역량기반 교육 개발 및 운영(이은실, 제양규, 2016), 기독교대학교 및 학교에서의 역량에 대한 연구(강영택, 2015; 장화선, 2017; 조철현, 2014), 기독교역량 교육모형 개발 및 적용(박은숙, 2013a), 교수역량 강화 연구(박은숙, 2013b) 등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교육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에 대한 기독교교육적인 함의를 밝히는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과 공교육 영역의 모든 학습자들과 세상에 기독교가 대한임을 볼 수 있게 하는 작은 문을 열어주고, 2015개정 국가 교육과정 아래 학교교육을 받는 교회교육 학습자들의 배움이 신앙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들의 신앙과 실제적인 삶이 통합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과 기독교적 핵심역량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정부의 6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학교의 전 과정을 통해 함양해야 할 6개의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급만 되었던 핵심역량을 ‘표면화’한 것이다(김경자 외, 2015). “창의융합형” 인재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요를 서술하기 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교육부, 2015b)에 제시된 내용들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6개의 핵심역량은 다음 <표 1>과 같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교육부, 2015b)

핵심역량	내용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 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	--



[그림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모형(교육부, 2015b)

2. 기독교적 핵심역량

기독교교육은 단순히 신앙을 위한 지식의 습득과 축적만이 아니라, 지식의 실천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이다. 월터스토프(N. Wolterstorff, 2004)는 기독교교육이란 학습자들에게 성경적인 사고능력과 아는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경향성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한다. 강영택(2015)은 “기독교 교육은 지식의 인격적 성격과 실천적 경향성이라는 기독교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지식은 인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식대상에 대한 지식은 그 대상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동반한 실천적 앎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 아래 있는 학습자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역할 중의 하나는 성경적인 가치들, 지식의 인격성, 실천적 경향성을 토대로 하여 기독교적인 핵심역량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본다. 기독교적인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을 해석하여, 다른 핵심역량들의 함양과 발휘의 동기와 가치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핵심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분석하여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연구한 김웅기(2017)와 강영택(2015)의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이정기·이은철(2018; 2019)의 기독교적 핵심역량과 연결시킬 것이다.

1)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기독교적 핵심역량 도출

역량은 단순하게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가 복합적으로 어떤 요구에 맞게 동원되어 수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다(Rychen & Salganik, 2003a; 2003b). 여기서 지식과 기능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하는 동력기제는 가치 및 태도일 것이다. 가치 및 태도는 동기나 신념, 다양성과 덕에 대한 존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역량의 가치 및 태도가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없이 개인적, 지역적, 사회적, 세계적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다(백남진·온정덕, 2018, 33-34). 역량은 가치중립적인 것이지만 역량의 개념에 포함된 지식은 인격적(personal) 성격을 띤다(강영택, 2015; 박상진, 2004; 한철희, 2004; Palmer, 2008). 지식이 인격적 성격을 띤다는 것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할 때, 그 사람(주체)과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인식하려는 주체의 인격적인 요소들(호기심, 동기, 성향, 열정, 가치, 신념 등)이 인식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역량은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다(이종재·송경오, 2007). 그러므로 역량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요소들, 특히 동기, 가치

등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역량이 실제화 되어 발휘되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역량이 수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역량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발휘하게 하는 동기, 가치 등은 어떤 것인가? 이를 성경적으로 찾아보는 것은 기독교적인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를 찾기 위해서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은 '사랑'이다(이재하, 2008). 김웅기(2017)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윤리적 행동, 또는 올바른 수행의 뿌리가 되는 동기 또는 마음의 태도는 '사랑'이라고 요약한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삼중적 관계(하나님, 타인, 자연) 속에서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사랑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 역량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 인간은 삼중적 관계 속에서 각 관계마다 특별히 길러져야 할 역량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영성과 관련된 역량(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동기의 내면화, 영성 발달을 위한 생활의 습관화)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덕성과 관련된 역량(대인관계 역량,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능력)을, 자연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지성과 관련된 역량(의사소통 능력, 자원, 정보, 기술 활용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연과의 관계를 위한 역량들은 비기독교적인 역량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역량 이해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량들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내재적 동기들이 다른 사람,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함양된 역량들과 함께 발휘될 때에, 그 행동의 동기와 목적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삼중적 관계 속에서 함양된 역량을 발휘하는 동기는 '사랑'이며, 목적은 성경적인 가치를 따른 실천적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적 맥락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역량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실천적 경향성이 중요할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사용되는 **אהב(אה)**이라는 단어는 단지 인지적인 측면에서 아

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적인 경험에서 오는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앎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식의 실천적 경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강영택, 2015). 안다는 것은 관계적인 것인 동시에 행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Miller, 1988, 281). 기독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지식의 실천성은 윤리적 측면에서 인식대상에 대한 책임과 헌신에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실천능력은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교과지식의 습득보다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강영택(2015)은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도출하는 연구에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지식의 실천적 경향성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핵심역량 5개(자기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활용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5개의 핵심역량들은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역량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말한다. 기독교적 핵심역량으로 영적감수성, 다문화감수성, 정의·평화감수성을 제시하였다. 영적감수성이란 통전적인 차원에서 인간 존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영혼의 긴박한 질문들에 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다. 다문화감수성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다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의·평화감수성은 정의와 불의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불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차별 없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며, 평화는 정의의 결과로써 하나님, 타인, 자연, 자기 자신 등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기쁨의 상태이다(Wolterstorff, 2004). 이 세 가지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아는 것뿐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에서 오는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앎이 필요하다.

이정기·이은철(2018)은 신앙을 토대로 하여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구성하였다. 신앙은 기독교의 근본 중심이며, 신앙적 신념체계와 사고방식은 기독교적 신념체계와 사고방식과 같은 의미이다. 신앙은 역량의 함양과 발휘에서 가장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신앙' 구성

요소의 영역을 지식(하나님을 아는 지식), 태도(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 정서(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서), 행동(의지적 행동)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는 기술, 지식, 정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지식, 기술, 정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 및 자기 계발 능력이다. 핵심역량의 구성요소의 영역은 모두 행동으로 정리하였다.

이정기·이은철(2019)은 신앙의 핵심역량 요소를 지식(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적 가치관, 실천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기독교적 핵심역량의 기반이었던 핵심역량 ‘신앙’을 발전시켰다. 신앙의 핵심 요소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에서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2) 기독교적 핵심역량 ‘신앙’과 구성요소

이상과 같은 기독교적 핵심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신앙’으로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신앙의 정의와 핵심역량 ‘신앙’의 구성요소(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1) ‘신앙’의 정의

신앙에 의해서 학습자는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형성하게 된다. 파울러(J. W. Fowler, 1981)에 의하면 신앙은 종교(Religion), 신념(belief), 신뢰(Trust)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그러한 요소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신앙은 종교보다 더 열정적인 참여이며, 신념 이상의 것이므로 전존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 존재인 초월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신뢰는 믿음과 충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신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방향성이며, 인간의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와의 관계이다(9-11). 칼빈(J. Calvin)에 의하면, 신앙은 믿음의 삶을 의미한다. 믿음은 실존적 확신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실천적인 헌신을 동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의미한다(1995: 이경직, 2012에서 재인용). 아우구스티누스(A. Augustinus)에 의하면 신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랑도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적 행위를 동반하며 하나님을 향유하는 믿음이다(정흥열, 2015). 맥도웰(J. McDowell)에 의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투영되어 겸손하고, 건강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1987: 이정기·이은철, 2018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적인 삶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은 실제적인 삶의 여러 가지 양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선택과 행동의 근거, 동기, 준거가 된다. 또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2) '신앙'의 구성요소

넬슨(C. E. Nelson)에 의하면, 신앙의 구성요소는 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이다(1967, 35-66). 세계관이라는 개념 안에 가치와 자아에 대한 관점이 들어있지만, 학교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은 청소년들이며, 그들은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고, 성경적 가치관을 익히고,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앙'이라는 핵심역량은 세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은 핵심역량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핵심역량들의 함양과 발휘를 위한 동기, 태도, 가치의 준거 혹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신앙의 구성요소 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적 자아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자아에 대한 가치이다. 이러한 자아정체성은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해답을 준다. 출생은 육체적 탄생에 불과하고, 자아는 누군가의 양육으로 형성된다. 어린이들은 모방을 통해 자신이 속한 그룹의 행동 패턴이나 삶의 스타일 등을 받아들이면서 자아정체성이 형성된다(Nelson, 1967, 65). 기독교적인 자아정체성은 초월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 비록 타락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적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자 등이 자아정체성 형성에 올바른 영향을 주고 있다(박화경, 2019).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과 창조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벗어나 있거나 관계가 왜곡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현대의 세속적인 가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웃)과 창조세계와의 관계 안에서의 삶의 질서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기주의와 쾌락적인 삶은 배금주의적 가치를 만들었고, 인간의 가치와 인간성을 추락시켜 허무하고 불안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인의 자아정체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학습자의 자아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 바른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방안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성경적 가치관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는 것이다. 가치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이 가진 가치의 표현이다(Nelson, 1967, 50). 기독교 신앙에서의 가치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경이다. 즉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치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의 중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 세상의 가치는 저마다 자기 자신이 가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가치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는 상황, 환경, 지역, 문화, 시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는 어떤 상황, 환경, 지역, 문화, 시대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이다.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다.

셋째, 기독교 세계관은 한 사람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며, 동시에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적인 구조는 창조-타락-구속이다. 이러한 구조는 성경의 흐름을 가장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창조: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이다.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다. 선한 창조세계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함이 생겼고, 이 결함은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죄에서 자유로운 곳은 창조세계 안에 아무 곳도 없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들과 인간들의 세상에는 창조의 선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구속의 길이 열렸다. 이러한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으로 한 사람이 세상을 보고, 세상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방식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한다.

3) 선행 연구 분석에 나타난 '신앙'의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 도출한 기독교적 핵심역량 '신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앞에서 서술한 선행연구 분석에서 넬슨(1967)의 신앙의 구성요소 세 가지(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성격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강영택(2015)의 영성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영적감수성 역량은 기독교적 자아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아에 대한 정체성은 인간이해의 바탕이 되며, 인간 영혼의 긴박한 질문들에 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

감수성이란 자아로서의 인간 존재를 통전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다.

다문화감수성 역량과 정의와 평화감수성 역량은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감수성과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인식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영택(2015)의 핵심역량 연구는 신앙의 구성요소(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세계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이 실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적 핵심역량(영적감수성, 다문화감수성, 공동체역량, 정의·평화감수성)이라 볼 수 있다.

김웅기(2017)의 연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과 관련된 역량을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동기의 내면화, 영성 발달을 위한 생활의 습관화”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역량은 ‘신앙’에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경에 대한 이해는 성경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적 동기의 내면화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성경적 가치의 내면화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성 발달을 위한 생활의 습관화는 신앙의 구성요소인 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Nelson, 1967, 35-66)에 따라서 사고, 판단, 반추하는 사고체계를 구성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성경 지식의 실천적 경향성(강영택, 2015)에 따라서 생활의 습관화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정기·이은철(2018; 2019)은 신앙을 기독교적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키고, 신앙의 구성요소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서, 의지적 행동”으로 제시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지식”(이경직, 2012)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는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 사

고하고 판단하는 사고체계를 말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서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는 신앙적인 의미이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아정체성에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의지적 행동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에 따라서 성경 지식의 실천적 경향성(강영택, 2015)에 따른 행동들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기독교적 핵심역량은 '신앙'이다. 핵심역량 '신앙'은 성경 지식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과 세계와 하나님을 알고, 이를 통해서 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며, 그것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사고체계를 구성하고, 성경 지식의 실천적 경향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능력이다. 성경지식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창조주 이시며, 구속자이신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의 관계는 신뢰를 낳고, 신뢰는 자발적인 순종(행동)으로 나타난다. 신뢰는 행동의 동기가 되며, 행동은 능력 곧 역량이 된다. 그리고 신앙의 구성 요소(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고체계를 구성하며, 역량 발휘의 근본적인 동기, 태도, 가치의 준거가 될 수 있다.

Ⅲ. 기독교적 핵심역량 적용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 재해석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핵심역량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 보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설명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기독교적 핵심역량 '신앙'을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모형에 적용하고, 6개 핵심역량을 기독교교육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설명할 것이다.

1. 기독교적 핵심역량 적용

기독교적 핵심역량 '신앙'은 성경 지식(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과 세계와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곧 역량이다. 핵심역량 '신앙'은 모든 역량의 함양과 발휘의 동기, 태도, 가치의 기반(기준)이 될 수 있다.

공교육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인간의 능력을 사회에서 필요한 자본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인간자본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자본론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학과 이성, 진보와 인류의 유익, 모든 개인의 권리와 평등과 자유 등에 헌신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자본론의 배경이 되는 세속주의의 특징은 "세상의 진보와 향상을 위해 능동적 책임을 다하고 ... 이국땅의 낯선 사람까지 포함해서 타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없애 버리면 이런 가치 실현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가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인문주의적 도덕 기준은 어디서 왔는가? 이러한 인본주의의 가치는 현대의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추론할 수도 연역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유물론적 세계관에서의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며 썩어 버릴 우주의 물질 조각일 뿐이며,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인간 존엄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현대의 이상인 인간 존엄에 대한 자유, 양심, 정의와 사랑,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인류의 유익 등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유래되었다. 즉, 세속주의의 인본주의적 도덕 가치는 과학적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 의한 신학적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Keller, 2018, 6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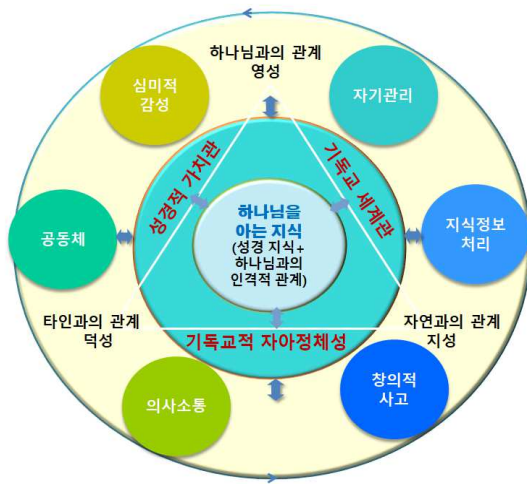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이상으로 보는 관점과 인간의 근원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다. 현대인은 인간 존엄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그것을 버리고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자본론에 근거한 것이며, 모든 사회악의 발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자본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학교교육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원적인 가치를 교육하여야 한다. 그것은 핵심역량 '신앙'이 모든 역량의 함양과 발휘의 동기, 태도, 가치의 기반(기준)이 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학교교육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역량 함양이 교육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의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펜스와 스펜스(L. Spencer & S. Spencer(1993년)에 따르면, 역량(competency)은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는 행동 및 사고방식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내적 특성을 ① 동기(Motives), ② 특성(Traits), ③ 자기개념(Self-concept), ④ 지식(Knowledge), ⑤ 기술(Skill)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다.

①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며, 목표를 향해 방향을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② 특성은 신체적인 특성, 상황 또는 정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반응을 하도록 한다. ③ 자기개념은 태도, 가치관, 자기상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동기, 특성, 자기개념은 개인의 내면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육성과 계발을 통해 쉽게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내면적 특성들은 기독교교육에서 육성하고 계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왜냐하면, 성경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신앙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여, 비가시적인 내면적 특성을 변화, 육성, 계발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신앙 형성을 통하여 학습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자기 자신(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④ 지식은 특정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⑤ 기술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식과 기술은 비교적 가시적인 특징을 가지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계발 육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역량의 가치중립적인 성격 때문에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가치의 기준이 없다.

역량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역량의 비가시적인 내면적 특성들의 계발과 가시적 표면적인 지식과 기술의 학습과 사용에 있어서 가치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의 함양과 발휘를 위한 동기, 태도, 가치의 기반(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핵심역량 '신앙'이 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적용하여 핵심역량 모형을 구성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12] 기독교 신앙적 핵심역량 모형

위의 [그림 2] 모형에서 중앙의 가장 큰 원모양이 세 가지 구성요소(기

독교적 자아정체성,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핵심역량 ‘신앙’이며, 작은 원 여섯 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이다. 기독교 신앙적 핵심역량 모형은 ‘신앙’이라는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6개의 핵심역량이 함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든 역량은 하나님과 타인(다른 사람)과 자연(창조 세계)과의 삼중관계 안에서 함양된다(김웅기, 2017). 또한 모든 핵심역량은 각각 단절된 구조가 아니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역량이 함양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해석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의 특성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성적인 요소가 가장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관리 역량과 심미적 감성 역량이 함양될 수 있다. 그리고 덕성적인 요소가 가장 필요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이 함양 될 수 있고, 지성적인 요소가 가장 필요한 자연과의 관계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과 지식 정보처리 역량이 함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을 기독교교육적으로 해석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기관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교육부, 2015b)”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아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자아정체성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역동적인 동일성과 연속성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이다. 청소년기는 새로운 가치질서와 세계관을 찾는 시기이다. 그리고 그 가치질서와 세계관에 자신을 결속시킴으로써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려고 한다. 청소년기 정체성 형성에 실패할 때는 심각한 역할 혼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소속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며,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당파적이 될 수 있다(Erikson, 1968: 양승준, 2013에서 재인용).

파울러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종합적-인습적 신앙”의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의 청소년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익숙하게 해줄 거울과 새로운 방법의 또 다른 거울을 필요로 한다”(1981, 243). 그리고 청소년기는 자신들의 미래와 그들이 속하게 될 사회의 본질에 관해 사고하기 시작한다(Crain, 2011, 172-173).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은 자기관리 역량 함양을 위한 올바른 자아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을 필요로 한다. 올바른 자아정체성은 자신감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며, 소명에 대한 관심과 미래 진로에 대한 준비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아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역량 ‘신앙’이 자기관리 역량 함양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2) 심미적 감성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교육부, 2015b)이다. 네이버국어사전(네이버, 2019)에서 심미적은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또는 그런 것. 사람마다 심미적 기준은 다르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클레멘트(Clements)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등의 초대교부들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즉 초월적이며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묘사한다(Sherry, 1992, 7-9). 중세의 아퀴나스(Aquinas)도 초월하신 하나님이 미의 궁극적 원인이며, 모든 창조물들에게 그 본질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부여하시는 분으로 이해한다(Sherry, 1992, 44). 발타자르(Balthasar)와 빌라데스(Viladesau)는 하나님을 아름다움의 근원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미적인 관점에서 아름다움의 정점으로 해석한다. 레우

(Leeuw)는 인간의 모든 문화와 예술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삶에 투영된 것으로 이해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시고, 인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체험할 때 발생한다(소태영, 2010). 이러한 것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다.

심미적 감성 역량에서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신 하나님,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비록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며, 죄에 물든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창조물들에게서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감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삶에 투영되어 아름다운 문화 예술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추어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예술가들이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이 심미적 감성 역량이다. 이러한 심미적감성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 수 있고 인간과 문화 예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하는 핵심역량 '신앙'이 역량 함양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교육부, 2015b)이다. 그룸(Groome, 1983)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는 한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30-34). 이 세상의 출발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로부터 하나님, 인간, 자연과의 공동체 그리고 인간은 남자와 여자, 나와 너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다(창1:26-27).

인간의 공동체성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근원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창1:26)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칭 대명사로 볼 수 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의 “우리”라는 단어는 인간의 사회성과 공동체성의 근원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송인규, 1996, 11).

공동체는 서로 관계 맺는 지식, 즉 서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식은 인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강영택, 2015; 박상진, 2004; 한철희, 2004; Palmer, 2008). 지식의 인격적 성격은 지식의 공동체적, 참여적 성격을 갖게 한다. 지식의 공동체적 성격은 인식주체가 인식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인식주체 개인(individual)의 주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 행위라는 것이다. 인간이 무언가를 인식하는 행위에는 그가 뿌리를 두고 있는 공동체의 합의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식주체가 인식대상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 참여할 때 인식대상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식대상에 대한 지식은 참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식의 참여적 성격은 인식주체에게 인식대상에 대한 책임, 돌봄, 헌신을 요구한다(강영택, 2009, 17-18).

기독교적인 공동체는 하나님, 타인, 자연과의 삼중관계 안에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역·국가·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책임, 돌봄, 헌신은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에서 오는 것이다.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는 핵심역량 ‘신앙’을 근저로 하는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형성된다. 그리고 인격적인 지식의 참여적인 성격은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역량 함양의 근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역량 ‘신앙’이 공동체역량 함양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교육부, 2015b)이다. 의사소통 능력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 능력에 토론과 조정능력까지 포함되는 것이다(김웅기, 2017).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좋은 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은 자신과 타인, 즉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인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언어이다. 그리고 공통의 언어는 서로간의 소통하는 교제를 위해서 주신 성경이다. 하나님은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창조 세계를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과 세계와 소통하게 하셨다. 하지만 죄가 몰림 듯이 들어온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진리의 말씀에 등을 돌리므로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워졌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의사소통은 이전과는 다르다. 그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즐기며 소통하고, 인터넷상의 SNS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세계에서 소통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은 떨어지고(김웅기, 2018), 실제적 삶은 단절되고 있다.

현대인들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비단 인터넷, 스마트폰의 상용화뿐 아니라,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공포 때문이다(Palmer, 2000, 69-113). 그 공포는 첫째, “타자와의 만남에 대한 공포”이다. 둘째, “다양성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셋째, “정체성 상실의 공포”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도전받는 것은 꿈,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러한 이유로 만남은 경쟁적 만남, 피상적 만남의 형

태를 갖게 되었고,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게 되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의 언어와 자아정체성이 필요하다. 공통의 언어인 성경의 지식은 공통의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게 한다. 공통의 언어는 현대의 가정, 학교, 사회 등 의사소통이 단절된 공간에서 의사소통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자아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의 구성 요소를 지닌 핵심역량 '신앙'이 의사소통 역량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5) 지식정보처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교육부, 2015b)이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 기계, 장치의 조작능력, 컴퓨터 SW, 과학적 지식 및 원리를 활용하는 능력이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찾고 활용하여 가치를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다(김웅기, 2017).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과 정보의 처리와 활용에 대한 가치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은 인간 존중을 위한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의 기준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성과 빅데이터와 초지능성의 영향을 받는 시대이다(Burger, 2018, 353). 그러므로 기술능력의 보유 정도에 따라서 양극화의 심화와 그에 따른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Schwab, 2018, 31). 기술발전이나 결합이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존중 받아야 할 대상이며, 이 세계에서 의미 있는 권한과 힘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이 미래를 결정한다거나 기술이 가치중립적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Schwab, 2017, 14; 2018, 33). 그러므로 가치 또는 기술과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기술발전이 어디

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는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의 기준이 필요하다. 핵심역량 ‘신앙’의 기독교 세계관은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도덕·윤리적인 가치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핵심역량 ‘신앙’이 지식정보처리 역량 함양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6)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은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교육부, 2015b)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발명품들이 인간의 문명에 유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지구촌의 정 원사로 부름 받은 학습자는 교육을 통해서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을 개발하여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엄성, 둘째,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유성, 셋째, 교육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창의성이다(김도일, 2018).

기독교교육에서 창의성의 근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기독교 교육의 기반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피조물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들은 기계적이거나 획일화되어 있지 않으며, 개성과 다양성 그리고 저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들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인간이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인간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창의적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다(Ryan, 2008, 25, 134; Paintner & Beckman, 2010, 13). 따라서 첫째, 모든 사람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무한한 방법으로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창의성은 개인의 선호도와 흥미에 따라 다른 표현 양식

을 가지며, 각 개인의 중요도와 성취도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진다. 셋째, 개인의 창의성은 교육을 통해 창의적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증진될 수 있다(박은숙 2009). 즉, 교육을 통해서 “폭넓은 기초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발견한 창의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와 흥미에 따라 광범위한 영역에서 무한한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계발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력 계발을 위해서는 기독교적 핵심역량 ‘신앙’의 기독교적 자아정체성이 창의적 사고 역량 함양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신앙은 인간 존재가 가진 존엄성과 사유성 그리고 창의성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신앙은 학습을 통해 잠재적 창의성을 발견하고, 구체화 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신앙을 근거로 하여 함양된 창의적 사고 역량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데 사용될 것이다.

IV. 나가는 말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만큼 사회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독교교육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교회교육은 다음세대를 잃어버리는 위기 속에 있다. 그 위기를 불러온 하나의 원인은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변화를 성경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하여 교회교육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밝히기 위한 연구로,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기

독교 신앙적 핵심역량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을 기독교교육적으로 재해석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교회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교육의 영역에 하나님의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은 현재 교회교육의 문제와 유사하게 배운 지식이 내면화 되지 못하여,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에서 기인하였다.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은 교육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주입식과 암기만을 강조하는 주지주의(intellectualism) 교육을 넘어, 지식을 내면화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기독교교육적으로 해석하여 교회 교육과정에 활용하면, 지식의 내면화를 통한 실천적 신앙인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에 유용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다음 연구과제로 넘긴다.

참 고 문 헌

- 강영택 (2009). **교통의 교육에서 희망의 교육으로**. 서울: 하늘유통.
- 강영택 (2015).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기독교학교의 과제. **신앙과 학문**, 20(1), 7-37.
-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09-'13). KISTEP 정책기획실.
- 교육부 (2015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각론 확정·발표(보도자료 2015. 9. 23). 교육부.
- 교육부 (2015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고시제 2015-74호). 교육부.
- 김경자·곽상훈·백남진·송호현·온정덕·이승미·한혜정·허병운·홍은숙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국가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김도일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호모 에두칸두스. **장신논단**, 50(5), 247-275.
- 김용기 (2017). 기독교적 역량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본적 원리들. **개혁논총**, 41, 101-131.
- 김용기 (2018).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학교교육관과 오늘날의 적용점. **개혁논총**, 45, 109-137.
- 김효숙·권성호·성민경 (2013). 스마트 환경에서 관계적 역량 증진을 위한 교회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교육논총**, 33, 67-90.
- 박상진 (2004). **기독교교육과정 탐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 박은숙 (2009). 창의적 문제해결 기독교 학습모형 개발. **기독교교육논총**, 20, 359-388.
- 박은숙 (2013a). 대학에서의 기독교역량 교육모형 개발 및 적용. **기독교교육정보**, 37, 93-121.
- 박은숙 (2013b). 기독교대학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CTL 특성화 프로그램개발 - 신앙과 학문 통합 역량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36, 247-268.
- 박화경 (2019). 과학과 세속화 시대에 직면한 신앙교육의 위기와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60, 1-35.
- 소태영 (2010).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며: 신학적 미학과 기독교교육의 예술적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23, 153-180.
- 송인규 (1996).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IVP.
- 양승준 (2013). 청소년 신앙형성을 위한 입교교육과정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39, 161-189.

- 연지연·최은수 (2016). 기독교 목회자의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과 교수 역량, 교회의 학습조직문화, 성도의 신앙성숙도와 서번트 리더십 간의 구조적 관계. **Andragogy Today**. 19(2), 1-27.
- 이경직 (2012). 기획주제 :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믿음 개념. **기독교철학**. 15, 91-115.
- 이은실·제양규 (2016). 기독교대학에서의 역량기반교육 개발 및 운영- 한동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신앙과 학문**. 21(2), 177-207.
- 이재하 (2008). 루터의 '사랑으로 형성되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선교와 신학**. 21, 42-67.
- 이정기·이은철 (2018). 미래 사회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기독교교육의 관제 제안 -기독교적 인재 역량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85-94.
- 이정기·이은철 (2019). 미래사회를 위한 신앙중심 핵심역량의 능력단위 분석.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41-154.
- 이종재·송경의 (2007). 핵심역량 개발과 마음의 계발. **아시아교육연구**. 8, 137-159.
- 장화선 (2015) 기독교교육 관점에서 역량 중심 교육에 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43, 109-136.
- 장화선 (2017). 역량기반교육의 맥락에서 사범계 기독교교육과의 동향: A 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사례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81, 31-50.
- 정홍열 (2015).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서 본 “믿음과 사랑의 관계” 재조명. **한국조직신학논총**. 41, 121-157.
- 조철현 (2014). 기독교 대학에서의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 K대학교를 중심으로 -. **기독교교육논총**. 37, 261-293.
- 조철현 (2015). 교회학교 교사상의 패러다임 전환 : 교사 리더십 기술역량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3, 261-291.
- 조철현 (2017). 교회학교 교사의 역량, 헌신도, 만족도, 그리고 교사사역 인식에 대한 양적연구: 장로교 K 교단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43, 157-181.
- 한철희 (2004). 신앙 교육을 위한 "지식의 암묵적 내주성"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1), 399-428.
- Burger, R. (2018). **4차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김정희, 조원영 역. 서울: 다산. (원저 2017 출판)
- Crain, W. (2011). **발달의 이론(개념과 적용 제5판)**. 송길연 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5 출판)

- Fowler, J. W. (1981). *Stages of faith*.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
- Groome, T. H. (1983).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원저 1980 출판)
- Keller, T. (2018). **답이 되는 기독교**. 윤종석 역.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원저 2016 출판)
- Lewis, C. S. (2000). *C. S. Lewis: Essay collection*. Walmsley, L(Ed.). London: HarperCollins.
- Miller, D. E. (1988). **기독교교육 개론**. 고용수, 장종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7 출판)
- Nelson, C. E. (1967). *Where faith begins?*. Atlanta: John Knox press.
- Paintner, C. V., & Beckman, B. (2010). *Awakening the creative spirit: Bringing the arts to spiritual direction*. Harrisburg, PA: Morehouse Publishing.
- Palmer, J. P. (2000).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이종인 역. 서울: 한문화. (원저 1997 출판)
- Palmer, P. J. (2008).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종태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원저 1993 출판)
- Ryan, T. (2008). *Soul fire: Accessing your creativity*. Woodstock, VT: SkyLight Paths Publishing.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3a). *Key competencies-for a successful life and well-functioning society*. Seattle: Hogrefe & Huber.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3b). *A holistic model of competence*. In D. S. Rychen & L. H. Salganik(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41-62). Seattle: Hogrefe & Huber.
- Schwab, K. (2017). **제4차 산업혁명**. 성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원저 2016 출판)
- Schwab, K. (2018).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 김민주·이엽 역. 서울: 새로운 현재. (원저 2017 출판)
- Sherry, P. (1992). *Spirit and beauty: An introduction to theological aesthetics*. Oxford: Clarendon Pr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pencer, L. & Spencer, S. (1993). *Competency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Wolterstorff, N. (2004).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bstract

**A Study on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6 Key Competencies of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ikyoung Seo
Ko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key competency as Christian(in another word: Christian key competency) and to interpret the six key competencie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a Christian educational way. Also as an alternative to the key competencies model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is study aims to materialize the formation of a Christian key competencies model based on Christian faith.

This study derived 'faith' from the key competencies as Christian throughout preceding research analysis. The 'faith' of the key competencies as Christian means the ability to know oneself, and to know the world and God within the knowledge of the Bible (knowledge of God) in the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and also it is the ability to think, judge, and act with biblical values, Christian world view, and Christian self-identity. The key competency 'faith' could be the basis (standard) of motivation, attitude and the value of all competencies in cultivation and exercise. The model of Christian key competencies has the structure in which each six key competencies become to be cultivated based on the Christian key competency called "faith." Based on the structure, the six key competencie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ere interpreted and explained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self-management competency, self-identity can be correctly formed in relations with transcendent God. In aesthetic emotional

competency, the empathic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comes from the understanding of the image of God, the supreme beauty, the source of beauty. About the community competency, human community is the source of God who created the universe, human and all of things. It is because a Christian community is a community within the relationship of Trinity God, Nature and others. Therefore regions, countries, and the world become one community. Communication competency first stem from good attitudes toward yourself and others with respectful mind. It comes from an understanding of Christian human beings. Also, there is a need of having a common language for communications. The common language is the Bible that given to us for our communicative companionship. Through the language of the Bible, God made us to know about God, human being and the creative world, and also made us to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God, others and the world. For having the knowledge-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y, a standard of value for the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required. The standard should be the basis of moral and ethical values for human respect. About creative thinking competency, the source of creativity is God who created the world. Human beings who have the image of God own creative potential. As well as, creativity has different expression forms depending on individual preferences and interests, and different approaches will be made depending on each individual's importance and achievement. Individual creativity can be found through education, and it can be embodied by converging knowledge, skills and experience.

《 **Keywords** 》

six key competencies of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Christian key competency, Faith, Christian educ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six key competencies, Christian key competencies model

- 투고접수일 : 2020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29일